2018 년 9 월 22 일 "(참된 공동체 8)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"(롬 6:3-6)

[1] 예수님과 합하여

예수님이 나의 구주요, 삶의 주인이시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때부터,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(**마 28:20** "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")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(연합하는) 것입니다. 바울은 3~6 절에서 '예수와 하나가 된', '함께', '연합'이라는 말로 예수님과 친밀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획일성이 강조되는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,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됨을 말합니다.

[2]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의 연합 - 침례식

3 절 – 성도가 세례(침례)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→ 그분과 함께 죽었다(영적 죽음)는 뜻
-> 침례식에서 물에 들어가는 행위로 상징
4 절 – 죽으심과 연합 -> 함께 묻힘(장사됨) -> 새 생명(부활)을 함께 얻음
-> 침례식에서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로 상징,
-> '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감' -> 물에서 나오는 행위로 상징
5 절 - 4 절을 다시 설명
6 절 –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.->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심.
7 절 –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됨 -> 부활의 새생명으로!

[3] 침례의 의미

성도는 예수님을 믿을(구주이며 주인으로 고백할) 때, 나의 옛 사람이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(6 절). 또한 7 절에서 말했듯이 옛사람의 죽음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. 이 옛사람은 세속중심적,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던 과거의 나를 말합니다.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새롭게 살게되고, 새 삶에 주어진 축복은 자기중심적 방식과 세속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.

죄의 세력은 나의 과거를 들추며 죄의 달콤함으로 유혹(세속적, 자기중심성을 부추김)하지만 새 사람이 되어 죄의 세력을 거부한다면, 기쁨과 새 삶에 대한 소망과 활력을 누리게 됩니다. 그래서 **13 절**, '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요' 라고 경고했습니다. 그러나 불의의 연장이 되면 **엡 5:3-5** 에서는 더러운 말, 어리석은 말, 음행, 더러운 행실, 탐욕,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속받을 몫(유업, 상)이 없다고 말씀합니다. 또한 **고전 3:15** 에서는 구원받은 자녀도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스스로 처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.

이러한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'옛사람이 죽고 새 삶으로 들어갔다'는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. 이 고백의 가시적 예식이 침례식입니다.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<맺음>

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,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의 죽음,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 삶의 열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확신과 사모함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.

<나눔의 질문> (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.)

1. 내가 침례 받게 된 간증이나 침례식을 통한 축복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요.